

## 学習成果報告

——信州大学での留学を振り返って——

2003年4月～2004年3月受入交換留学生

韓国カトリック大学言語文化学部 2年 鄭 炳熙

信州大学での一年間の留学は私の日本語の実力に大きな変化を及ぼした。授業は主に留学生のための授業と日本人と一緒に受ける授業に分かれるが、前期には日本語そのものに関する授業を中心に取り、後期には、日本語そのものだけでなく日本文化と日本文学に関する授業も取った。そして前期には、日本語そのものの実力を伸ばすことができ、後期には、日韓の文学の歴史について興味を持つようになり、自分なりの比較ができた。さらに、日本だけの文化ではなく、様々な国の文化を勉強することができ、多様な文化を理解するようになった。

前期には、次の11科目の授業を履修した。日本文学購読、現代韓国、伝統文化実習、上級日本語作文、日本事情、日本語教育学概論、日本語の表現、留学生のための日本語Ⅰ、日本語、韓国料理紀行、文化比較論である。「日本文学購読」は、『杜子春』と『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を読みながら文学の中で使っている表現について勉強した。その授業は私に日本文学を読む力を与えてくれた。「日本語の表現」では、日本語で論文を書くことについて学び、論文で使われる表現を学んで実際にその表現を使って論文を書いた。私は、韓国における整形手術の実態とその解決方法というテーマで論文を書けるようになった。「上級日本語作文」では、NHKのニュースをテレビで見ながらコメントを書いたり、ニュースの主題について作文を書いたが、何よりもニュースを自然に聞きと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一番大きな成果である。「日本語」という授業もあったが、ここでは、信州大学のある長野市や松本市についての文章を読みながら、信州のことを学んだ。その授業では毎週、文法と漢字のテストがあった。初めは、漢字のテストが私にとって少し難しかったが、この授業の漢字を覚えながら12月の日本語能力試験の準備をした。そして、「現代韓国」と「韓国料理紀行」という授業を取ったが、その授業は私が学ぶ立場ではなく、韓国のことを日本人学生に教える立場になったので、普通の授業より日本語でたくさん話すことができた。授業を通して自然に自国について考えるようになり、あまり興味がなかった政治問題にも興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授業を通し、日本語で書く、日本語で聞く、日本語で話すという、この三つの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後期にも、11科目の授業を履修した。異文化理解、日本文学概論、現代韓国、日本文学購読、伝統文化実習、日本事情、日本語教育学概論、韓国料理紀行、日本語の表現、留学生のための日本語Ⅱ、日本の教育である。後期には、日本語そのものに関する勉強も引き続き行った。しかし、前期と違い、専門の授業を増やした。半年間の勉強で自信が付いたおかげで自分にとって少し難しいと思った授業を取って見たのである。それが「日本文学概論」である。そこでは、日本文学をどう理解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勉強した。専門の授業であるため初めは本当に難しかったが、日本の文学作品を読みながら、いろいろ辞書で単語の意味などを調べた。その中で、日本の現代文学と韓国の現代文学で、言文一致という同じ運動があっ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前期までの読む力だけではなく、日本の文学を読んで、韓国の文学と比較し、その文学について自分なりに新たな考えを持つようになった。「日本語の表現」という授業では、前期と違い、後期には、スピーチと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する方法について勉強した。スピーチについて勉強している時に、「松本ロータリクラブ」主催のスピーチコンテストがあることを知り、原稿を出したら、運よく選ばれて本選でスピーチを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授業の最後には、自国の社会問題について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した。日本語で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日本の企業での就職を希望している私にとって良い機会になった。そして、日本語で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にも自信がついた。前期までは会話を中心に学習したが、後期のこの授業を通し、公の場で話せる力がついたことは大きなことであった。「伝統文化実習」という授業もあったが、その授業は一年間様々な日本の伝統文化を体験する授業であった。短歌と俳句をつくったり、長唄を聞いたりした。授業で作った短歌が日本全国短歌大会で特別賞をもらったことは私にとってこの授業の一つの成果だと思う。短歌大会の受賞を通じ、日本文化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り、新たに韓国の文化も調べ日本人に伝えたいと思った。それ以外はお茶を立ててみたり、花人形や松本手まり作りなど、いろいろなことを体験しながら、日本の伝統文化を学んだ。さらに「日本事情」の授業‘前期’でも、日本の文化について勉強し、より深い学習ができて、日本文化が日本人の生活と考え方にどのくらい影響を与えているのかについ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また、「異文化理解」ではいろいろな国の人と勉強をして、文化の違いと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ついて勉強した。日本で、日本だけではなく、他の国のことも勉強でき、自分なりに外国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理解しつつ実践に移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日本語教育学概論」という授業では、日本語を教えるために必要なことについて勉強したが、その中でも音声学と方言についての授業はたいへん興味深いものであった。自国に帰ってもさらに勉強したいと思う。

最後に、個人的な思いだが、12月の日本語能力試験の1級に合格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も私にとっては、一つの日本留学の成果だと思う。しかし、何より大きい変化は、日本語で恥ずかしがることなく自分の考えや気持ちを何でも話せる自信がついたということだと思う。このことは、ぜひ記しておきたい。

## 학습 성과 보고서

2003년 4월~2004년 3월 신슈대학교 교환유학생  
가톨릭대학교 언어문화학부 2학년 정병희

신슈대학교에서의 일년간의 유학은 나의 일본어 실력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수업은 크게 유학생을 위한 수업과 일본 학생들과 함께 받는 수업으로 나누어져 있어, 1 학기에는 일본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수업을 중심으로 듣고, 2 학기에는 일본문화와 일본문학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그 결과, 일본어 자체의 실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한일 문학의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되고 내 나름대로의 비교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일본의 문화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문화도 공부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문화의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한다.

전기에는, 다음과 같은 11 과목을 이수하였다. 일본문학강독, 현대한국, 전통문화실습, 상급일본어작문, 일본사정, 일본어교육학개론, 일본어의 표현,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I, 일본어, 한국요리기행, 문화비교론이다.

「일본문학강독」은, 「두지춘」과 「창가의 토토」를 읽으며 문학에서 쓰이는 표현에 대해 공부했다. 그 수업은 나에게 일본 문학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일본어의 표현」에서는, 일본어로 논문을 쓰는 법에 대해 배우고, 논문에서 쓰이는 표현에 대해 공부하여 실제로 그 표현을 써서 논문을 썼다. 나는, 한국에서의 성형수술의 실태와 그 해결방법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상급일본어작문」에서는, NHK 뉴스를 TV로 보면서 코멘트를 쓰기도 하고 뉴스의 주제에 대해 작문을 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뉴스의 자연스러운 청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제일 큰 성과이다. 「일본어」라는 수업도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는 신슈대학교가 있는 나가노시와 마쓰모토시에 대한 문장을 읽으며 신슈에 대해 공부했다. 그 수업에서는 매주 문법과 한자 시험이 있었다. 처음에는, 한자시험이 나에게 조금 어려웠지만, 그 수업의 한자를 외우며 12월의 일본능력시험 준비를 했다. 또한 「현대한국」과 「한국요리기행」이라는 수업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는 내가 배우는 입장이 아닌 한국의 것을 일본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입장! 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의 수업보다 일본어로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별로 흥미가 없었던 정치 문제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일본어로 쓰기, 일본어로 듣기, 일본어로 말하기라는 3 가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2 학기에도 11 과목의 수업을 이수했다. 이문화이해, 일본문학개론, 현대한국, 일본문학강독, 전통문화실습, 일본사정, 일본어교육학개론, 한국요리기행, 일본어의 표현,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Ⅱ,일본의 교육이다.

2 학기에는 일본어 자체에 대한 공부도 계속 이어서 해 나갔다. 그러나 1 학기와 달리 전공수업을 늘려서 들었다. 반년간의 공부로 자신감이 생긴 덕에 나에게 있어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수업을 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수업이 「일본문학개론」이다. 그 수업에서는 일본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공부했다.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일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사전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일본의 현대 문학과 한국의 현대 문학에서, 언문일치라는 똑같은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학기까지의 읽는 능력뿐 만 아니라 일본 문학을 읽고 한국 문학과 비교하여 그 문학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전공 강의로는, 「일본어교육학개론」도 수강하였다. 이 강의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음성학과 방언에 대한 수업은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였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

「일본어의 표현」이라는 수업에서는 1 학기와는 달리 2 학기에는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다. 스피치에 대해 공부하고 있을 때에 '마쯔모또 로타리 클럽' 주최의 스피치콘테스트가 있는 것을 알고 원고를 제출했는데 운 좋게 선발되어 본선에서 스피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수업의 마지막에는, 자국의 사회문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일본어로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일본 기업에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어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에도 자신이 생겼다. 1 학기까지는 회화를 중심으로 학습했지만 2 학기의 이 수업을 통해 공공의 장소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을 소중한 소득이다. 전통문화라는 수업도 있었는데, 그 수업은 일년간 여러 가지의 일본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수업이었다. 단가와 하이쿠를 짓기도 하고 나가우타를 듣기도 했다. 수업 중에 지은 단가가 일본 전국 단가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은 것은 나에게 있어 이 수업의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단가 대회의 수상을 통해 일본 문화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새롭게 한국의 문화도 찾아보고 일본에게 ! 전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 그 이외에는 차를 타 보거나, 하나닝교와 마쯔모또테마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를 체험해 가며 일본 전통 문화에 대해 배웠다. 게다가 「일본사정」이라는 수업에서도 일본의 문화에 대해 배워,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 문화가 일본인의 생활과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또 「이문화이해」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문화의 차이와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배웠다. 일본에서, 일본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의 것을 공부할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의 외국인과의 대화를 이해해가며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2 월의 일본어 능력시험 1 급에 합격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일본 유학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일본어로 부끄러워하는 것 없이 나의 생각이나 기분을 무엇이든지 말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두고 싶다